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3인 확정



기호 3번
황주호 공과대학 교수



기호 6번
한균태 정경대학 교수



기호 7번
장성구 의과대학 명예교수

- ✓ 미래를 약속하는 자랑스런 대학
- ✓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
- ✓ 기부금 300억원으로 증액
- ✓ 취업률 75% 달성

- ✓ 창의·융합·실천적 인재 양성
- ✓ 지구적 과제 수행
- ✓ 인적, 제도적, 연구설비 적시 제공
- ✓ 다양한 수입원 창출, 지출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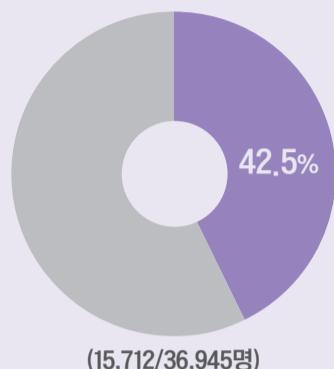
- ✓ 미래 지향적 대학 실현
- ✓ 전 학생 AI 교육 제공
- ✓ 경희백년전략위원회 설립
- ✓ 구성원이 참여하는 열린 대학

지난 14일 제 6차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 회의에서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개표가 이뤄졌다. 그리고 지난 15일 총추위 행정지원단이 구성원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최종 후보자 3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최종 후보자는 황주호 공과대학 교수, 한균태 정경대학 교수, 장성구 의과대학 명예교수다. 각 후보자가 어느 구성원에서 추천됐는지는 법인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총추위 해석에 따라 최종 총장 선임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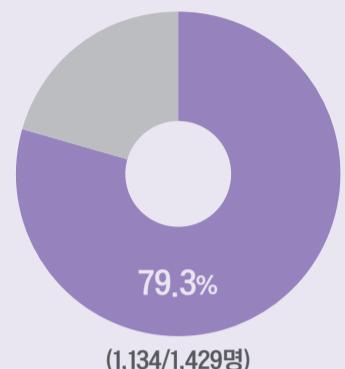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 구성원 투표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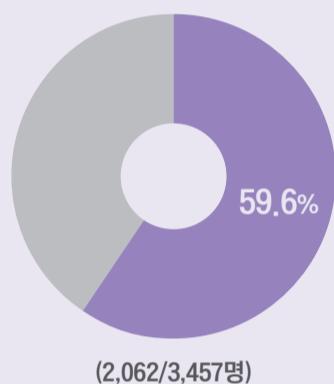
〈전체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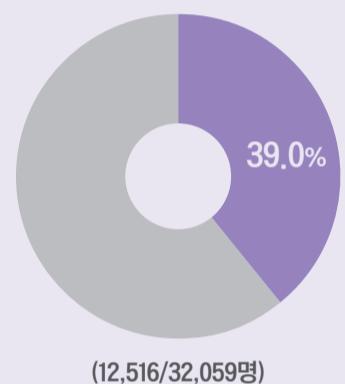
〈교원 투표율〉



〈직원 투표율〉



〈학생 투표율〉



제 16대 총장 후보자 3인 확정 최종 선임 차기 이사회에서

11월 13일 구성원 투표 총 투표율 42.5%로 마감
재논의 있었던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 결국 제자리

김지원 기자 bjw990327@khu.ac.kr

지난 14일 황주호, 한균태, 장성구 후보자가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총장 선임은 차기 이사회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른바 총장선임 프로세스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13일 총장후보추천을 위한 구성원 투표가 총 투표율 42.5%(15,712/36,945명)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구성원 별 투표율은 교원 79.3%(1,134/1,429명), 학생 39.0%(12,516/32,059명), 직원 59.6%(2,062/3,457명) 이었다. 별다른 개표 기준이 없어 투표율 높낮이를 논 할 순 없지만 구성원의 손으로 직접 치르는 첫 총장후보추천 투표였던 만큼 투표율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투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행정지원단(지원 단)의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 현수막, 벽보 등의 흥보에 기댄 채 이뤄졌다. 때문에 구성원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원 단체별 투표 독려도 활발하게 이뤄졌는데 이에 최종 투표율에서 교원과 직원이 과반을 넘기고 학생도 큰 폭

의 투표율 상승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총 투표율 역시 투표 마감 날이었던 13일 오후 3시 35%에 진입, 오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5시 마감 됐다.

최종 3인의 후보는 14일 열린 6차 총주위 회의에서 개표해 확정했다. 지침에 따라 최종 후보자 3인은 교수 측 최다득표자인 제1후보, 직원·학생 측 최다득표자인 제2후보, 교수 측 차순위 다득표자인 제3후보로 정해졌다. 단, 제1후보자와 직원·학생 측 최다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차순위 다득표자를 제2후보로 결정, 제3후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결정 했다. 그러나 이 순서는 최종적으로 법 인에 추천될 때에는 삭제됐다.

이 방식은 지난달 30일 마련한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대학-구성원 대표 합의문'(합의문)에 명시된 투표반영비율을 적용한 결과였다. 투표반영비율은 합의문에 따라 학생·직원 간 50:50, 직원 내부는 제1노조와 제2노조, 의료원 노조가 각각 6:2:2로 했다. 그러나 6차 총추위에서는 돌연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이뤄졌다. 의료원 노조가 기존 합의했던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에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과거 의료원 노조는 1안에서 2안으로 넘어가는 과정, 즉 후보추천방식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시 1안에서 합의한 직원 간 투표반영비율에도 변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의료원 노조의 서명 없이 투표반영비율 합의를 담은 합의문이 발표되자 다시금 재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종 후보 도출에는 기존 합의했던 6:2:2의 비율이 적용됐다. 제1노조 한상 위 원장은 "직원노조 간 기준의 6:2:2, 6:3:1, 55:30:15, 혹은 대학 노조와 병원 노조가 각각 80:20의 투표비율을 갖고 대학 양 노조가 1:1의 비율로 80을 나눠 갖는 형태 등이 논의됐었다"며 "하지만 별다른 타협점을 찾지 못해 6차 총추위에서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기존 합의된 6:2:2의 투표비율을 고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필요했던 논의가 모두 끝난 뒤 최종 후보 3인이 황주호, 한균태, 장성구 후보자로 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총추위 활동은 마무리된 상태다.

3면으로 이어짐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국제캠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됐다.

제 52대 총학생회 선거 본격 시작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호 2번 WORKHUMAN 선본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18일부터 양 캠퍼스 제 52대 총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18일부터 22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25일부터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국

제 캠퍼스(국제캠)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19일부터 21일까지다.

25일부터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국

제 캠퍼스(국제캠)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19일부터 21일까지다.

25일부터 3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국

제 캠퍼스(국제캠)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을 진행했고 19일부터 21일까지다.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는 강연정(경영학 2017) 정후보, 전준필(경영학 2015) 부후보가 속한 기호 1번 Know_How 선거운동본부(선본)와 최인성(생물학 2016) 정후보, 정경원(회계세무학 2016) 부후보가 속한 기호 2번 무

빙 선본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국제캠 또한 김예솔(러시아어학 2016) 정후보, 장세훈(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속한 기호 1번 공감 선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이고 양성민(원자력공학 2015) 정후보, 이 소영(체육학 2016) 부후보가 속한 기

시선

사설

한 걸음 남겨둔 총장 선출

마침내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3인 선출까지 끝났다. 총장 초빙 공고가 지난 9월 19일 세간에 알려졌으나 그로부터 57일이 걸렸다. 그 결과 지난 14일 최종 후보자로 기호 3번 황주호, 기호 6번 한준태, 기호 7번 장성구 후보자가 선출됐다. 이로써 구성원 손으로 추려낸 3명의 후보자가 범인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개교 70년 아래 처음으로 총장 선출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된 고무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제 구성원의 역할은 마무리됐고 총장 선출의 열쇠를 범인이 넘겨받게 됐다.

그렇다. 총장 선출까지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뒀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 한 건 설득력 높은 총장 선출 '과정'이다. 세 명의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낸 현재 여러 이해관계가 총장 선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처음으로 실시된 민주적 총장 선출임을 고려하면 구성원의 피하기 어려운 불안감이다. 일부 남아있는 구성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무사히 총장이 선출되어야 그 다음, 또 그 다음 총장 선출 과정에 긍정적인 선례로 기억될 수 있다. 부정적인 선례는 추후 같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판단 근거가 되어버린다. 이번 총장 선출뿐 아니라 이후 경희의 미래까지 고려하면 남은 과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구성원을 대표하는 총장이 최종적으로 선출될 때 그간의 노력은 빛을 발할 것이다. 그 동안 구성원 간 일어난 갈등은 하나의 합일된 목소리를 위해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잡음이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민주적 총장 선출이란 목적을 갖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민주적 총장 선출에도 달했을 때 더욱 의미를 가지는 행보임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을 대표하는 총장은 더 나은 경희의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한다. 구성원은 계속해서 차기 총장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작년 12월 구성원은 인식조사를 통해 차기 총장에게 행정, 경영 역량 및 소통적 리더십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약 3천여 명의 학생 설문을 통해 차기 총장에게 교육 여건 개선을 바란다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구성원은 그간 염원을 담아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기 총장은 이해관계가 아닌 구성원을 우선시해야 함은 당연 할 것이다. 총장 선출에 대한 무게감은 마지막까지 구성원의 기대감과 함께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범인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총장을 선임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이제 공은 범인으로 넘어갔다. 범인은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와 앞으로의 4년 동안 경희대학교를 이끌어갈 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범인이 하더라도 구성원을 오롯이 대표하는 총장이 선출돼야 함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간 들여온 구성원의 노력을 완성하는 건 결국 범인의 합리적 결단에 달려있다. 온 구성원이 간절히 열망해왔던 민주적 총장 선출에 한 걸음만을 남겨둔 상태다. 총장 선출을 위해 길었던 과정을 잡음 없이 매듭지을 때다.

만평 - 학내 청소 노동자 휴식공간 실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세시봉

이후승 (편집장)



외국어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학생은 외고를 선택한다. 영어를 기반으로 국제정치·문화·법 등 국제 관련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은 국제고로 진학 한다.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율 설정한 교육과정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은 자사고에 지원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스스로 판단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고등학교를 선택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부터 세 학교를 일반고로 바꾸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 교육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 큰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련의 설명도 이뤄지지 못했다. 일반고 전환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고 전환이라는 결정을 했다면 왜 그 화살이 모든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가 아닌 외고·국제고·자사고에만 향했는지, 그리고 고교서열화 문제가 그저 원하는 분

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피해를 봐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인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일단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 8학군' 중심 고교서열화를 다시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쏠림 현상 때문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 실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을 평가한다. 그리고 강남 8학군 고등학교는 오랜 시간동안 좋은 입시 실적을 보였다. 모든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기존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수용하던 우수한 학생이 강남 8학군으로 쏠리는 모습은 쉽게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7일 유 장관의 일반고 전면 전환 발표 이후 강남 아파트 전세 문의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결국 다시 고교서열화를 만들게 되는 흐름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와 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사교육 심화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의 불평등이란 학생들이 더 깊게 배우고 싶은 분야를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지만 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혹여 불평등이 비싼 학비 때문이라면 특목고 학비를 현행보다 인하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유지하면서 일반고 역량을 국가 주도로 강화시켰다면 어땠을까 싶다. 현행 결정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교육부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 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2조 2천억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었을 때만 투입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만들 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반고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하향평준화가 이뤄진다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선택을 막고, 배우고 싶은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게 된다.

유 장관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연 이번 결정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과연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 교육'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은 이것뿐인지를 묻고 싶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신문에 실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취재수첩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대략 6주에 걸친 취재 기간 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선배 기자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기사를 마감했을 때도 아닌 취재원으로부터 이 한마디를 들은 순간이다. 열 글자도 안 되는 짧은 말이지만 휴게실 환경 개선을 향한 열망과 자신이 대학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일말의 안도감, 찾아와준 기자를 향한 고마움 등 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사실 청소노동자 휴게실이라는 아이템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기자'를 꿈꿔온 나에게 강한 취재 욕구를 불러 일으켰다. 그렇게 넘치는 의욕으로 취재를 시작했지만 초반에 열정을 모두 태워버려서인지, 기획 기사를 처음 시도해보는 초보 기자여서인지 취재는 갈수록 버겁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럴 때마다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인터뷰를 해주신 청소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와 얼굴을 떠올리며 취재를 이어나갈 원동력을 얻곤 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변

화시킨다면 그것은 말 한마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찾아와줘서 고마워요.”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들은 날에는 웬스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곤 했다. 기사 하나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상상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다. 소위 말하듯 ‘이 맛에 기자 하나보다.’라는 감정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곧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 찾아왔다.

변화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 취재원은 “이 이야기가 신문에 나가면 환경이 개선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져 왔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허탈함이 물어나는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다. 많은 학생들이 취재하러 왔다 갔지만 사실상 그동안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 속상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랬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변화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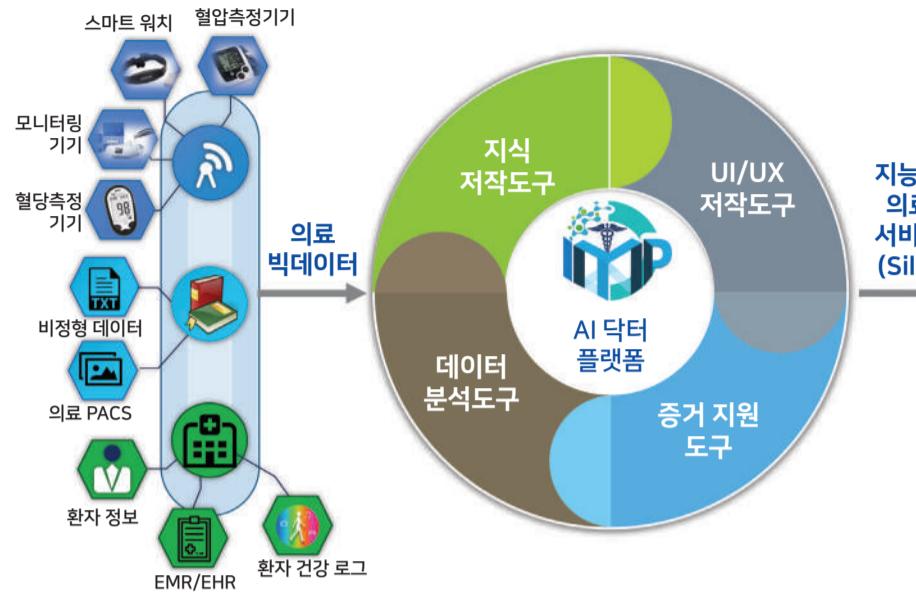
그동안 나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

는 기사보다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사를 쓰겠단 신념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그의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보다 변화라는 것이 멀리 있다는 고리감과 함께 기자로서의 한계를 체감한 순간이었다.

고민 끝에 내가 찾은 답은 변화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는 여러 집단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개인 혹은 한 집단에 의한 변화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하다. 즉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고 해서 그 즉시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를 읽은 사람들 사이에 공감을 얻는 문제의식의 형성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등 많은 과정이 존재할 때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기자가 현실을 알리는 행위가 정보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AI 닥터’, 말레이시아 상용화 앞둬



문화령 기자 moonbym@khu.ac.kr

우리학교 이승룡(컴퓨터공학)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지능형 의료 플랫폼 ‘AI 닥터’가 말레이시아 의료시장에 진출한다. 지난달 9일 우리학교 컴퓨터공학과 지능형 의료 플랫폼 연구센터는 내년 말 말레이시아 최고 병원인 ‘말라야 의과대학병원’에 AI 닥터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닥터는 의사를 돋는 보조수단으로, 의료 행위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질병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 행위를 돋는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의사가 놓치기 쉬운 정보를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AI 닥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데에는 이 교수가 유럽연합(EU)에서 수주를 받아 진행한 국제협력과제가 큰 역할을 했다. 이 교수는 올해부터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을 대상으로 AI 닥터 플랫폼과 서비스를 교육해왔다. 그 중 말레이시아 말라야

의과대학병원이 AI 닥터를 현지에 맞게 적용하고 싶단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보였다. 이에 우리학교 연구센터는 지난 5월부터 말레이시아 연구진과 교류하며 현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파악해 이를 동남아시아 병원에 보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우리학교 지능형 의료 플랫폼 연구센터와 말라야 의과대학병원은 AI 닥터 지식재산권 계약을 체결해 이를 말레이시아에 상용화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지능형 의료 서비스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마련됐다.

AI 닥터를 개발한 지능형 의료 플랫폼 연구센터는 센터장 이 교수를 필두로 총 17명의 참여 교수·의사·기업과 총 39개의 대학·기업·병원으로 이뤄져 있다. 국내 유수의 의료진과 협력해 의료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다.

AI 닥터 플랫폼은 의료지식 획득 및 추론, 지식 엔지니어링,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저장, 적절한 사용 환경 관리, 의료 서비스 통합이라는 5가지 단계를 거쳐 구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에 환자의 데이터 및 정보가 입력되

면 AI 닥터는 의료진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케어 플랫폼 분야의 선두 주자인 이 교수는 “지난 1970년대부터 존재하던 의료전문가 시스템을 보다 확장시켜 AI 닥터를 만들게 됐다”며 “의료, 법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활용돼 그 서비스의 내용을 혁신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해 AI 닥터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가 10가지 일만 할 수 있을 때 인공지능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30가지, 100가지 일을 수행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AI 닥터가 의사를 대체하기보다 지원 및 보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심부전 진단, 갑상선 치료, 뇌전증 치료, 당뇨투석환자 관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만성당뇨 관리가 가능하다”며 “말레이시아 연구진과 공동개발 중인 허리 통증 진료 분야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면에서 이어짐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해 총장후보를 추천했다는 점이 의미 있었고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총장선출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며 “이러한 참여와 학생들의 관심이 보다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은 “다른 구성원에 비해 모집단이 큰 학생의 투표율이 40% 대에 달한 것은 학생들의 고무적인 결과로, 새로운 총장과 함께 할 새로운 경희가 더 중요한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변화를 도모해야겠다”고 말했다.

직원 위원회였던 제1노조 한상 위원장은 “70년 만에 구성원 손으로 총장을 뽑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대학의 품격에 어울리는 준비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의견을 해결하는 방식에 아쉬움이 남

분이 경희의 발전을 위해 총장 선거에 출마해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의회가 개인을 편파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이라며 “치밀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주적 총장 선출이었던 만큼 훈련한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한편 총장선임프로세스는 그 마지막 단계인 이사회 선임만을 남겨둔 상태다. 법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총장 선임에 관한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차기 이사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보자 3인 추천으로 총추위 활동 사실상 마무리

교수의회 “김도연 예비 후보자 폄하하거나 배제하려던 것 아냐”

구성원 “투표율은 새 총장에 대한 기대 나타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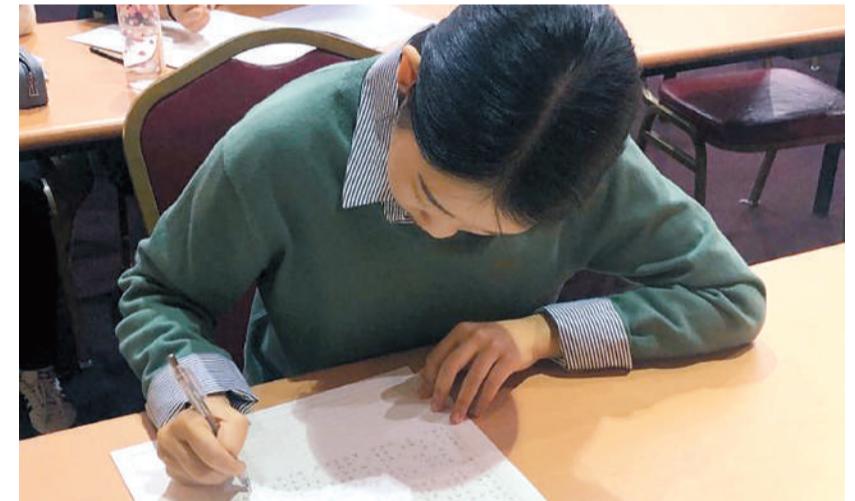
‘후마 글쓰기의 날’ 행사 글쓰기로 하나 되는 모습 펼쳐져

장보경 기자 jbg6987@khu.ac.kr

김소라(철학 2017) 씨는 “기후 변화와 미래 세대를 주제로 나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김가영(치의예 2019) 씨는 “예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그 해결 방안을 쓰려고 하니 어려웠다”며 “이번 글쓰기를 계기로 기후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 고 말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후마 이규진 교수는 “고독한 글쓰기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타인과 함께 글을 쓰고 이로써 참가자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후마 이영준 학장은 “호연지기는 대학생들이 반드시 길러야 하는 정신”이라며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의 글 속에 미래의 비전이 넓게 펼쳐지기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상을 수상한 김민세(언론정보학 2018)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만, 사실 그것은 공동체의 문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이 글을 쓰고 있다.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구성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11월 14일 열린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구성원 투표 결과에 따라 총장 후보자 3인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기호순).

기호 3번 황주호

기호 6번 한균태

기호 7번 정성구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위의 후보자 3인을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선거에 입후보하신 예비 후보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후보자 신출에 참여해주신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장 선출절차를 통하여 경희대학교가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이명웅

지난 15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명웅 위원장의 명의로 최종후보 3인을 발표하는 공문을 메일을 통해 구성원에 발송했다.

기획

혐오 표현으로 얼룩진 사회, 대학의 역할은?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Scen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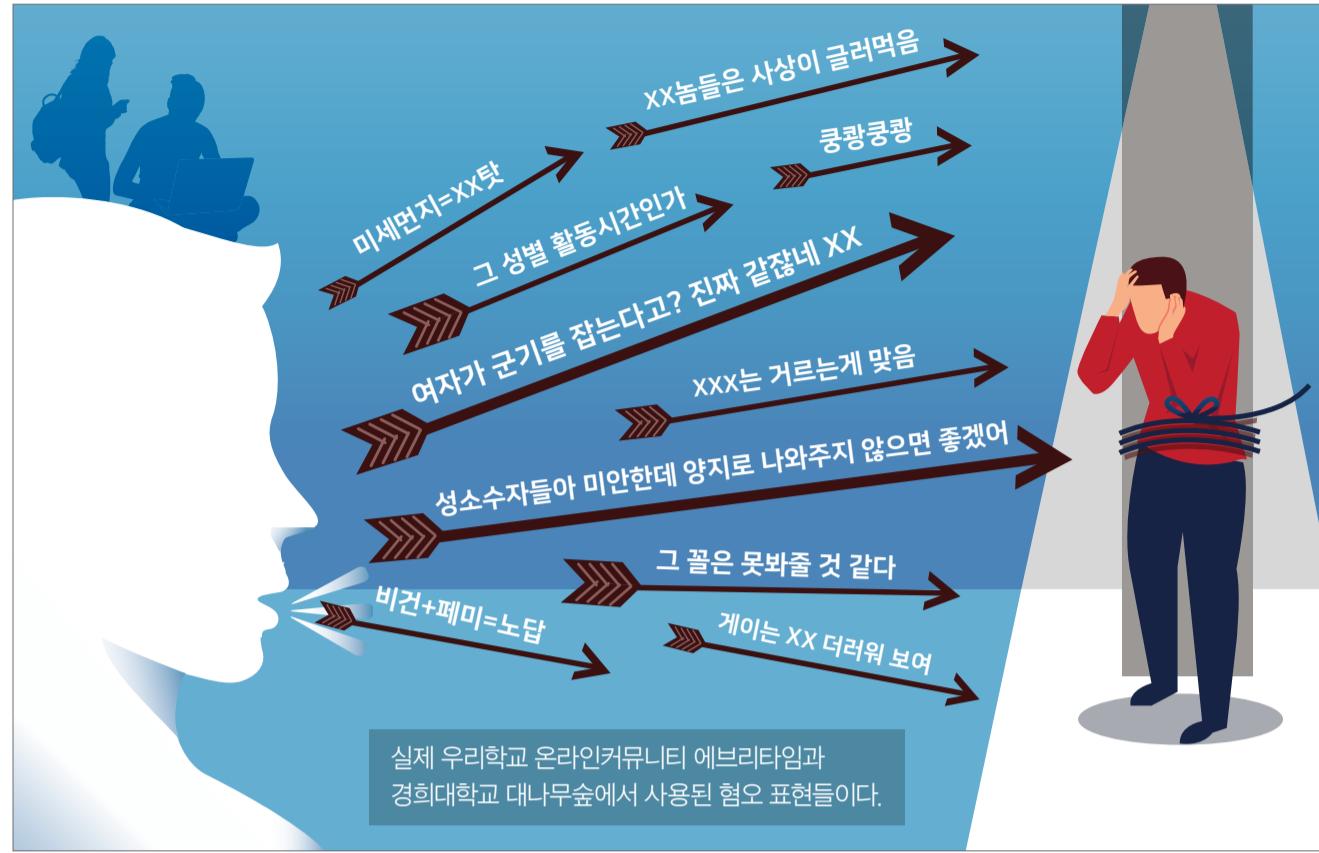
저는 에브리타임에서 ‘고니’(각주: 고정 닉네임의 준말. 커뮤니티에서는 익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가끔씩 저를 욕하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내용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처음에는 해명도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맞대응하고 있는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때의 소문들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사실처럼 규정됐어요. 이젠 그냥 그려려니 해요.

Scene#2.

학과의 군기 문화를 고발했었던 대자보를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 저희 학과에서는 학과 규칙을 개정하기도 하고, 구성원끼리 합의도 하면서 군기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자부해요. 최근에 저희 학과를 특정해서 욕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댓글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제게 돌아오는 답은 ‘여자가 군기를 잡더라. 같잖다’와 같은 근거도 없고 자극적인 비난이었어요.

우리학교의 ‘에브리타임’, ‘경희대학교 대나무숲’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혐오 표현이 사용되고 있 었다.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의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시물에는 “살면서 정상적인 중국인을 본 적이 없다”, “XX인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라는 혐오성 댓글이 달렸다.

이외에도 혐오 표현의 대상은 개인, 단체, 소수자, 학과 등 다양했다. ‘민주



언론시민연합’에서 온라인 악성 댓글 문화를 주제로 연재했던 송경재(인류 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혐오 표현을 분류하는 것이 무의미한 정도로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라며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혐오 정서가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디지털 주홍글씨가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의 혐오 정서는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번져간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 교수는 혐오 정서가 증폭되는 현상에 대해 “나도 따라해야지”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해가 쉽고 자극적인 혐오 정서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악성 댓글을 다는 다수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혐오 정서가 심화되는 이유를 글로만 의사 전달이 가능하단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권과사회복지연구소 박진옥 소장은

“현실에서는 몸짓, 표정, 목소리와 같은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교감할 수 있다”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텍스트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려는 정도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정서는 심화되고 있다. 다수가 소수를 압도하는 ‘집단 따돌림’과 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논문 「누가 혐오를 생산하는가? - 인종적 위계의 하층에 배치된 외국인들」(양혜우, 『비교문화연구 제56권』, 2019.09)에서는 ‘예멘 난민 사태’에 비추어 “단편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진실처럼 가장하여 저마다의 이유로 혐오 정서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소수자의 억압을 묵인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때 인류가 어떤 비극을 저지를 수 있는지는 역사에서도 확인

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댓글 실명제와, 언론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총 23,13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각에는 과잉 규제로 이어지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2년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 실명인증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권과사회복지연구소 박 소장은 “온라인에서 혐오 정서가 서슴없이 표현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침묵하고 방조해 왔던 다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잘못된 사안에 대해 다수가 목소리를 보태서 지적해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도 보장해줄 수 없는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분석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만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새로 제출된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혐오 표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대학에서의 담론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 교수는 “커뮤니티 사용 주체인 학생사회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합의 결과를 수렴해서 게시판 운영원칙을 정립하고, 자발적인 학생 운동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학교에서도 혐오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사회의 움직임(우리학교에서 처음 열린 인권주간,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길”/대학주보, 2019.09.29.)이 있었다. 인권주간 행사를 기획한 이현주(국어국문학 2018) 씨는 기획의도에 대해 “학생사회는 혐오 정서에서 시작되는 문제를 직시하고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혐오 표현에 맞서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권과사회복지연구소 박 소장은 “온라인에서 혐오 정서가 서슴없이 표현되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침묵하고 방조해 왔던 다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잘못된 사안에 대해 다수가 목소리를 보태서 지적해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2020년 1학기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일정

구분	대상	현장실습 신청기간	실습기간
2019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기관모집	1차 : 2019. 9. 2.(월) ~ 11. 12.(화)	2019. 12. 23.(월)
	학생모집	1차 : 2019. 11. 13.(수) ~ 11. 20.(수)	2020. 2. 21.(금)
2020년 1학기 장기현장실습	기관모집	2019년 12월 중순 ~ 2020년 2월 초순	2020년 3월
	학생모집	2020년 1월 말 ~ 2월 중순	8월 중

- 현장실습 근무기준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4주 160시간이상 (법정공휴일 및 침정권행사 일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참가자와의 협의 하에 근무 시작일의 조정은 가능함. 단 근무기준 (4주 이상)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으로 인해 공지된 실습 종료일 4주 전까지 실습을 종료하여야 함(해당 실습 공고문 확인 필요)



현장실습 참가학생 실습지원 사항

- 경희대학교 3~4학년 재학생(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 가능. 단,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생 불가)
-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 : 현장실습 이수 시 실습기간에 따라 학점과 지원금 부여

구분	학교→학생		실습기관→학생	
	학점(이수 시)	지원금(이수 시)	학점	지원금
단기현장실습	4주 이상 8주 이상	3학점 6학점	40만원/4주 기준 80만원/8주 기준	현장실습 참여 학생 1인 40만원(4주 기준) 이상 지급금 지급 권장
장기현장실습	8주 이상	최대 15학점 최대 240만원/24주 기준	최대 240만원/24주 기준	

- 단기현장실습으로 6학점을 기록한 학생이 8주 현장실습을 추가 신청한 경우, 학점은 3학점만 인정하고 지원금은 8주 기준으로 지급



2017년 6월 고시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주요내용

- 제6조(현장실습 운영시기)
- 현장실습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은 제1 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현장실습지원)
-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9년 겨울학기 단기현장실습 세부 추진일정

순번	구분	내용	기입	대학	학생
1	실습기관 등록 및 참여신청	경희대학교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실습기관등록 - 현장실습 전형 부서 등록 - 참여기관 등록 - 운영체육사 허가증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모집분야를 고려하여 모집전공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radio"/>		
2	학생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intern.khu.ac.kr 접속 - 미적사, 저기소에서 작성 후 서면서 등록 - 실습기관, 직무, 소재지 등을 조희하여 신청 * 서면서 등록하지 않으면서 실습기관 조희 가능 * 1개월의 실습 기간을 신청 가능 * 민족기념관 등록(정보화학과 및 개화동쪽 유파 [별첨2]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용설명서 참조)		1차 11.13~11.20. 2차 12.2~12.6.	
3	학생선팔	서류심사 : 해당학과에서 학생 서류심사 기관 최종선팔 - 서류심사 전형 및 면접을 통해 심사 - 홈페이지에서 신청학생에게 문자로 확인 - 학생별 서류심사 결과는 학생별로 최종 확정	<input type="radio"/>	1차 11.25~11.29. 2차 12.9~12.13.	
4	협약체결	온라인협약체결 - 실습처설정 7일 전 결료 * 3주 간과 세월드미디어 보고서 작성 가능	<input type="radio"/>		실습사작일 7일 전
5	상해보험 가입	상해보험 가입 * 국내외 현장실습 상해보험 학교 가입			실습사작일 7일 전
6	사전교육	실습생 모집인 사전교육 이수 * 미수수 시 학생교육과 지원 및 불가 * 단과대학 사전교육 이수 학생은 모집인 사전교육 이수 필수			
7	현장실습 시행	현장실습 모집인 : 1일 8시간, 주 5일 4주 연속 운영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학생은 휴업 및 향장관행사 일정은 현장실습 실적 인정일수에서 제외됨		2019.12.23~2020.2.21.	
8	실습기간 병여	현장실습 지도교수 기입 병여			실습기간 중 <input type="radio"/> 실습종료 후 2일 미내
9	증명서 입력	홈페이지에서 작성(증명 종료 2일 이내) ▶ 학생·주간현장실습지원센터 사전설명, 실무자 및 학생방문 ▶ 실습기간 : 실습생 출석증, 학생방문서, 실무자 * 기관 평균점수 70점 미달 시 현장실습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10	학점 인정 및 지원금지급	학점 인정 및 지원금지급 * 최초 제출일 기준 약 1개월 * 최초 지급일은 1월 말 (실습기관의 지원금은 실습기관에서 직접 학생에게 지급)			<input type="radio"/>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intern.khu.ac.kr>

쉴 곳 있지만 쉬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 우리가 일과 종 마주하는 모든 곳은 청소노동자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청소노동자는 휴식을 취하려 휴게실에 들어간다. '휴게실'이란 고된 업무로 지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게실은 마음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8월에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주간 우리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를 파악해봤다. 취재 기간 동안 목격한 열악한 휴게실은 좁고 더운 공간이었다.



오비스홀 휴게실에는 선풍기와 유일한 냉방 기구다. 그마저도 2대뿐이라 12명이 생활하는 휴식 공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휴게실에는 앉아서 쉴 공간은 있었지만 낮은 천장 때문에 이곳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평화의전당 1층에 위치한 휴게실에는 2명이 생활한다. 하지만 휴게실이 계단 아래 위치한 탓에 발소리로 인한 소음이 심하다. 결국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는다.



서울캠퍼스 본관 휴게실 안에는 버젓이 정보처 서버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울캠 학생회관 휴게실에서는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싱크대를 사용한다. 이곳을 사용하는 한 청소노동자는 "목 근육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9687@knu.ac.kr

음악대학 한쪽 구석에 자리한 청소노동자 휴게실. 비가 내린 다음 날 아침이면 넓지 않은 방 바닥의 절반가량이 물로 흥건히 젖는다. 한쪽 벽에서 물이 새는 탓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노동자 A 씨의 출근 후 첫 일과는 밤새 고인 물을 닦아내는 것이다. 벽에 곰팡이가 슬어 악취가 진동해도 창문이 작아 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앞에 휴게실이 위치한 나머지 문을 열어 두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지난 9월 1일 우리학교는 '정규직 전환 합의서'에 의거해 비정규직 직원 2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환 대상으로는 용역업체 및 학교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됐다. 우리신문은 학교 측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이 열악한 휴게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휴게실이 열악한 근본적인 원인은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고용부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는 휴게시설의 규모, 위치, 냉난방 설비, 소음 등에 관한 규정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1m^2$, 전체 최소 $6m^2$ 이상의 휴게시설 면적을 마련해야 하며, 휴게시설은 작업장 내에 설치돼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 지하는 옥내 공기, 악취 등으로 인해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휴게실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도 제시돼 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공학관 내에 위치한 휴게실의 한 쪽 벽은 방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이면 난방을 해도 한기가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원래 하수관이 지나가던 자리에 휴게실을 마련한 탓에 여름이면 악취가 심하다.

예술·디자인대학관 내 휴게실은 옥상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노동자 B 씨는 "휴게실이 옥상에 있어 눈이 내리면 바다에 미끄럽다"며 "정수기를 사용하려면 매번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불만을 언급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휴게실은 그 환경이 더 열악했다. 앞서 언급한 음악대학에는 2명의 청소노동자가 생활한다. 이곳은 빗물이 샐 뿐만 아니라 면적이 좁아 노동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고용부 가이드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면적은 최소

$6m^2$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곳의 면적은 $4.65m^2$ 로 고용부가 제시한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냉방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오비스홀 1층 계단 아래에 위치한 휴게실이 그곳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12명의 노동자들에게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여름은 악몽과도 같았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 안에는 환풍기도, 에어컨도 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들은 "학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에 휴게실이 위치한 뒷에 출입문을 열기도 불편해 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도 건의를 했지만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돌아온 것은 선풍기 2대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올해 여름철 더위로 인해 베타일이나 고지리움을 겪었다고 했다.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진 노동자도 있었다. 청소노동자 C 씨는 "더위도 문제지만 환기가 전혀 안 돼 기관지가 망가진 것 같다"며 "서울대 노동자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학생회관 1층에 위치한 휴게실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만큼 낮은 천장이 문제다. 계단 아래 위치한 탓에 옷장과 싱크대, 앉아서 쉴 공간이 모두 낮은 천장 밑에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노동자 김영주 씨는 "서서 다닐 수가 없어서 목이 너무 아프다"며 "예전에 한 노동자는 목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천장의 높이를 측정해보니 약 1m 50cm로 키가 크지 않은 사람도 똑바로 서 있기 힘든 높이였다.

심지어 이곳 휴게실은 여자 노동자 2명과 남자 노동자 1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중 남자 노동자 최광희 씨는 "옷 갈아입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며 "우리학교도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야 개선이 되려나 싶다"고 말했다.

본관 1층 휴게실 안에는 정보처 서버가 설치돼 있다. 이곳을 사용하는 윤중복 씨는 "기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부 가이드

는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휴게실 안의 소음을 $50dB$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로부터 조언을 받아 휴게실 내 소음을 직접 측정해보니 소음 허용 기준을 $16dB$ 가량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기계에 붙여둔 듯자리를 가리키며 "전자파가 걱정돼서 불여 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휴게실이 지하에 자리한 것도 문제다. 지하 3층에 위치한 약학대학 휴게실에서 생활하는 청소

노동자 D 씨는 "지하라서 습해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평화의 전당 지하 1층 휴게실을 사용하는 청소노동자 E 씨 역시 "환기가 전혀 안 돼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학교가 열악한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팀장은 "서울대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휴게실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건물을 설계할 때 노동자 휴게실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의 강의 공간과 교원들의 연구 공간, 행정 공간 배정이 가장 우선시 된다"고 말했다. 또 "그러다 보니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비교적 건물 내 자투리 공간에 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국제캠 또한 휴게실 환경 개선에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휴게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왔다"며 "지난주에도 고장 난 것이나 개선이 필요 한 곳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한 정 계장은 "공간 부족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며 "청소노동자분들의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근무 환경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휴게실이 열악한 이유는 본래 사람이 이용하도록 만든 방이 아니라 창고나 기관실 같은 건물 내 빈 공간을 개조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캠 오비스홀 휴게실은 구조적으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 본관 남자 휴게실도 정보처 서버를 옮기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휴게실로 쓸 빈 공간도 없는 상황이다. 다른 휴게실 또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총무팀은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열악한 단과대학에 공간 확보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학생들과 교직원 역시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청소노동자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의 확보는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 빈 공간이 생겨나도 애초부터 공간 배정 논의에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휴게시설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실제 한 청소노동자는 "신문에 나오면 뭐 달리지나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획

SW 기초교육, 비전공자 관심에 맞춰 개선 이뤄져야

〈소프트웨어〉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대학사업단에 의해 설계된 SW기초교육 과정이 본래 취지대로 수강생 전공과 연계해 응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W기초교육 과목 중 하나인 '부의 진화-게임과 네트워크'를 수강한 김가빈(영어영문학 2018) 씨는 해당 과목 이수 후 최근에야 해당 수업이 SW기초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임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SW 활용보다는 역사와 이론을 주로 다루는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SW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실용성이 증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를 구입하고 보니 본문 외에 강의에서 새롭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드물었다"며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어서 SW 기초교육 과정의 운영 취지와 방향이 궁금해졌다"고 SW 기초교육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전했다.

실제로 SW기초교육 과정은 이전부터 운영되던 기존 강의가 다수 포함됐다.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필수로 이수하도록 지정되면서 이에 맞춰 교육 과정이 새로 설계됐지만, 여전히 기존 강좌로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체해온 것이다. 수학, 언어, 인터넷, 네트워크 등 기존 과목들이 소프트웨어의 기초라는 점을 감안해 SW기초교육 과정에 포함됐다. SW를 직접 설계하거나 코딩에 대해 교육하는 강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더 많았다(2018년 기준, SW기초교육 과목 중 온라인 강의 57개, 현장 강의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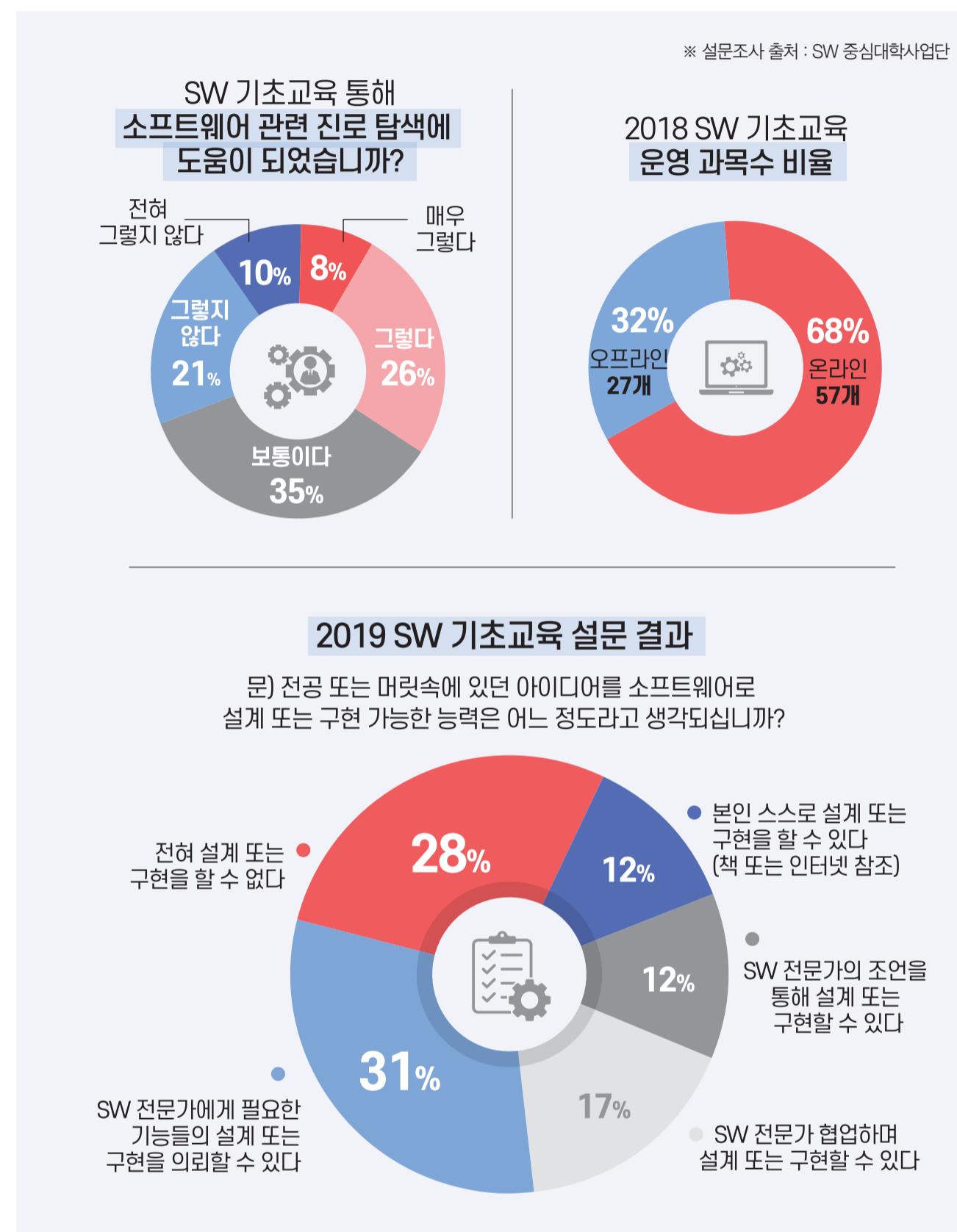
현장에서 들은 학생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기술' 수업을 수강한 김다은(간호학 2018) 씨는 "주로 PPT 자료를 보면 해당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는 강의였다"며 "해당 강좌가 SW의 활용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아 흥미를 갖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함께 수강한 '창의적 사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과목에 대해서도 "간단한 코딩을 배우기는 했지만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암기 위주의 학습으로 이어져 이를 응용하기엔 부족함이 있었다"고 강의 진행 방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학기 SW교육 강좌를 통해 코딩을 익히고 있는 장예신(의예 2018) 씨 역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SW나 인공지능에 대해 배운다면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딩을 익히는 실습 자체는 흥미롭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초 코딩 지식이 졸업 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SW기초교육의 운영 목표로 'SW를 도구로 활용 가능한 능력 구비', 'SW를 활용한 전공

'SW를 활용 가능한 능력' · 'SW를 활용한 전공 문제 해결'이라는 운영목표

현실은 암기 위주 학습, 전공과 진로에 접목시키기 어려운 교육

전공 및 관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

각 현장에서 SW를 어떻게 활용할지 제시하는 것이 실용적인 교육 방향

“

의 문제 해결', 'SW 융합인재 양성'으로 꼽고 있다. 단순히 SW 흥미제고를 넘어 타 전공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에서 활용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얻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다.

SW중심대학 사업단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2019년 1학기 수강생 2934명 중 597명 참여), SW기초교육 과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50%가 넘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SW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답하며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강의 내용의 완성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매우 만족한다 13.2%, 만족하는 편이다 42.5%).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진성 교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의 과목 선택 폭이 넓고 본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게 수업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위와 같은 설문 결과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상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인 답변도 적지 않았다. 'SW 기초교육을 통해 SW 관련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약 34.3%의 학생만이 긍정적인 반응('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보였다. 또한 '아이디어를 SW로 설계 또는 구현 가능한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28%의 학생이 '전혀 설계 또는 구현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직 12%의 학생만이 '책 또는 인터넷을 참조해 본인 스스로 설계 또는 구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SW 교양 수업을 통해 관련 이론 및 코딩을 배운 김다은(간호학 2018) 씨도 "수강 중에 SW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되거나 전공과 접목시킬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향후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희망하는 진로에 도움을 얻거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특정 단과대나 전공 학생들을 위해 설계된 SW 수업은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공을 염두에 두고 수업이 진행돼 SW의 필요성을 이해하거나 관련 진로를 탐색하기 수월했다는 것이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SW강좌 '빅데이터로 바로 보는 세상'을 수강한 차수연(한의예 2018) 씨는 "기존에 코딩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는 필요성을 모른 채 수업 내용을 암기하는 데 그쳤다"며 "그렇지만 전공과의 연계가 뚜렷한 수업을 듣다 보니 SW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SW분야를 처음 접하는 만큼 어떻게 이를 관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강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가빈(영어영문학 2018) 씨 역시도 문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빅데이터와 영어학습' 수업을 듣고 "실제 영어권 사람들의 언어 사용 습관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수업을 통해 SW를 활용한 생산적인 접근 방식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바로 보는 세상' 수업을 맡은 김양석 교수는 "SW에 대한 교육은 크게 이를 설계하는 과정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며 "비전공자에게는 각 현장에서 SW를 어떻게 활용할지 제시해주는 게 더 실용적인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업 의도를 설명했다. 또한 "각 분야의 SW 활용 방식은 실시간으로 변화한다"며 "논문부터 산업 보고서,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등 최신화된 자료를 제공해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단은 단과대별, 전공별 이수 과목의 편성을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인문계열과 이공계열 학생들을 분반해 전공별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 부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만일 단과대의 요구가 있다면 전공과 연계된 성격의 강의도 개설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전달을 요청했다. 이론 위주의 온라인 강의도 "자체 제작한 웹사이트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현실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SW 교육 과정이 정착된 만큼 내용 측면에서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목이 늘어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AI 시대의 의학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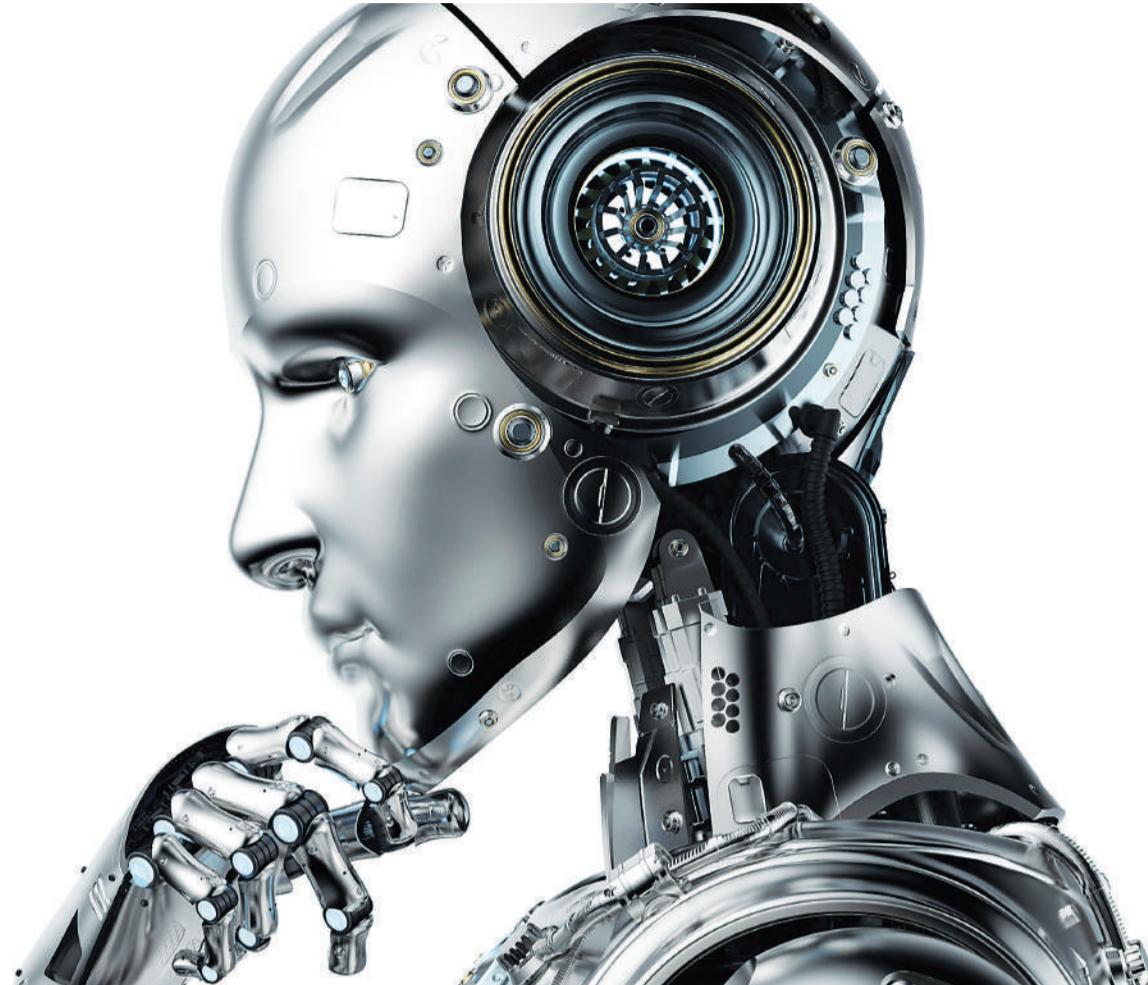
교수칼럼

백유상
한의과대학 교수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였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정보 기술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라면, 인간 및 사물들 간의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초연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징을 가진 사회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특히 AI의 발전이 의학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의 모색에 대하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AI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는 반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의사는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설정해 나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의학은 원래 의사가 주체자로서 성립되고 발전해 온 학문이 아니



인간의 지성을 AI가 대체해 나가면서 인간의 관심사는 점차 '자신의 행복'으로 옮겨갈 것이다.

(사진 = 중앙일보 DB)

라, 먼저 환자의 질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성된 실용학문의 하나인 것이다. 환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의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지성을 AI가 대체해 나가면서 인간은 많은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과로를 많이 해서 피로가 쌓여 있다고 할 때,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 힘들여 고민할 필요가 없다. 'Wearable AI doctor'가 지시해주는 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고민으로부터의 해방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지적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유희를 목적으로 지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가상현실 속의 문제 해결은 참된 보

람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관심사는 점차 '자신의 행복'으로 옮겨갈 것으로 생각된다. 고민으로부터의 해방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 행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한의학의 최고 의서인 『황제내경』에서는 인간의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不知持滿, 不時御神, 務快其心, 逆於生樂, 起居無節"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즉, 만족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상황에 맞게 정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마음을 쾌락에 빠뜨리는 것에만 힘쓰는 것, 삶 속의 즐거움에 역행하는 것, 기거에 절도가 없는 것 등이다. 반대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은 "志閑而少欲, 心安而不懼, 形勞而不倦… 故美其食, 任其服, 樂其俗"이라 하여,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몸을 원태롭지 않게 함으로써 음식을 감사하게 먹고, 맙을 일을 잘 완수하며, 주변과 잘 어울리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부터 미래에는 행복 또는 만족감이 질병 치료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미 불치병을 앓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행복은 환자 자신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데에도 행복한 삶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의학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시대에 살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든지, 억지로 행복에 대한 욕구를 외면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조언으로 2천여 년 전에 쓰인 『황제내경』에서는 평범한 삶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 자신을 존중하고 지나치게 남을 부려워하지 않을 것, 주변 사람들과의 어울릴 것 등을 말하고 있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⑤

교수사회 길드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의 길드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자신들과 같은 유형의 인간들의 재생산에 골몰한다.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사고 체계와 행동양식을 계승하는 사람들만 자신들의 길드에 받아들인다. 자신들을 비판하고 넘어서는 학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수들을 배양하는 길드체제는 효율성의 관점에서나 윤리적 관점에서나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시장 속에서 경쟁에 내몰린 중세의 길드들은 생산력의 발전과 이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생산양식의 발전 속에서 해체되었다. 하지만 대학은 사실상 사회의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소비자를 상대로 자유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속에 기생하는 대학교수들의 길드는 경쟁에 의한 자연적인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학의 시스템을 시장경제로 바꾸고 교수들을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내몰면 대학의 길드체제는 해체될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대학교수들의 길드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대학을 시장경제 체제로 만든다면 대학이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사회의 공동의 지식과 가치들을 전승, 개발,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길드를 해체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일종의 국가고시를 통해 국가지식인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자질을 보증하고 교육비와 연구비를 지원하면 길드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식인 집단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전문적 지식인이라면 최고 수준의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을 선별할 때 반드시 ETS에서 주관하는 대학원수학자격시험의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요구한다. 미국 대학원에 가려는 학생은 언어논증, 수리논증, 분석적 작문 능력을 검증하는 이 시험에서 상당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문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첫 단계인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러한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각 대학에서 자율적

으로 시행하는 대학원 입학시험으로 검증하는데, 문제의 질적 수준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을 학교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하다보니 통과 기준 자체도 매우 낮다. 이러다보니 상위권 대학 학부생의 평균적인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적 표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한국 대학의 장래를 위해서는 국가가 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서 주관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들이 학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학위 논문을 쓰기 전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연구자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 대학에서 논문을 심사하고 학위를 부여해야 한다. 말하자면 국가공인 박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박사가 된 사람들은 일생동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중심의 지식인 양성 제도가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을 제한한

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국가는 단지 연구자를 지원할 따름이다. 어떤 학문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 학문과 연구 능력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 지원 없이 자신들이 대학을 세우고,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모집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국가공인 대학원생을 양성하고 국가공인 박사 고시를 실시하게 되면, 학자로서의 능력이 공인된 이들은 대학에 자리를 잡기 위하여 기존의 대학교수 길드를 구성하고 있는 구시대적 지식인에게 복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들이 지식인 사회의 중심이 되고 대학교수가 되면서 대학교수 길드는 소멸되고, 우수한 교수들에 의해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발전할 것이다.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

인터뷰-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자 3인

“성숙한 구성원 모습 자랑스러워”…“법인과는 협력필요”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기호 3번
황주호 공과대학 교수기호 6번
한균태 정경대학 교수기호 7번
장성구 의과대학 명예교수

Q. 소감

구성원 간 이견은 있었지만 이를 잘 조율하면서 결국 최종 후보자 3인이 결정된 것은 구성원이 충분히 자랑스러워할만한 일이다. 총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정립된 절차에 의해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후보자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 개교 70년 아래 구성원의 직접적인 의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된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절차를 밟아 지금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 안에서 최종 후보자로 뽑혀서 행복하다.

Q. 소감

책임감, 책무, 총장의 역할과 같은 부분을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제시했던 교육 철학과 미래 비전 및 세부 공약에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만일 최종적으로 총장이 된다면 실현 가능한 공약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대학의 정책이나 의사 결정에 구성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표해 모두가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에서는 구성원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동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Q. 법인과의 관계

대학 발전에 법인과 대학이 바라보는 목표의 방향은 다를 수가 없다. 하지만 법인과 대학이 함께 바라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준비한 상태로 법인에 의사를 밝히고 동의를 받은 뒤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대학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목표 실천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 좋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

Q. 법인과의 관계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설립 정신이 있고 창학 정신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창학 이념과 잘 호응해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문에 법인과 서로 긴밀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의 정책을 대학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Q. 소감

일단 대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1차적인 메시지를 받게 됐다. 대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솔직히 과정상에 혼란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었다. 하지만 이는 개교 70년 아래 처음 해보는 선거라 그랬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출 과정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처음이었지만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선거가 계속된다면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Q. 법인과의 관계

대학 발전을 위해 법인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절대적이다. 우리학교 법인은 대학에 해야 할 의무를 100% 해주고 있는 몇 안되는 법인이다. 물론 발전을 위해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인이 대학에 투자하는 합법적 수의 사업에 대한 대학의 협조도 있을 것이고 법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 숫자로 보는 제 16대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

#. 법인 이사회에 보고될 최종 후보자 3인이 구성원 손으로 결정됐다. 최종 후보자 3인이 선거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총장 선임 이후 중요해질 법인과의 관계를 물어봤다. 또 갖가지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번 선거를 숫자로 알아봤다.

7명

출마한 예비 후보자



3명

인문사회계열 예비 후보자



3명

이공계열 예비 후보자



1명

의학계열 예비후보자

15,712명

투표한 유권자 수



42.2%

전체 투표율

6회

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횟수



305분

예비 후보자 토론회, 정책 발표회 소요 시간

57일

총장 초빙 공고부터 최종 후보자 3인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경희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Your Story? Our History!

3분 latte 영상 공모전

“나 때는 말이야...”

경희대학교에서는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3분 latte 영상 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의 후배들에게 할례의 대학의 대학원 생활을 영상으로 표현해 보세요.

* 예시: 나의 3분 영상 보이는 3시간 동영상

주제
개교 70주년을 보내는 개교 70주년의 대학원 생활
분야
1. 교내 활동: 수업, 과제, 조모임, 동아리, 소모임, 체육대회, 축제 등
2. 일상 생활: 학점, 평점, 동아리, 주거공간, 취미활동, 취업활동 등
3. 자유 주제: 경기자기자유롭게 하거나의 키워드를 선정
* 예시: 나의 3분 영상 보이는 3시간 동영상

서상 내역
대상 (1편)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2편) 상금 30만원
우수상 (3편) 상금 20만원

참가 자격
경희대학교원 학생 (휴학생, 수료생, 종업예정자 포함)
* 투표에 참가 시 한팀 3인 이내

경희기록관·개교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나'를 알고싶은 경희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래인재센터 DISC 검사 실시안내



이디스크 말구요!

나의 행동특성

직무별 면접도

스트레스 스타일

의식/무의식의 상향

↑ 요길 모두 알 수 있는 검사가 바로

Extended DISC 검사 (약 5만원 상당)

신청하기!
[참가비 무료]

KHU 미래학신원 미래인재센터 x 대학학신원사업

활동기반 DISC 검사 특장점

저학년 : 자기이해

나의 경력 / 나의 학습스타일
스트레스스타일 / 시민면면스타일
무의식적 의사 / 행동특성 / 편안으로
진짜 나를 알아보세요!

고학년 : 직무매칭

활동 스타일 / 개인적 특성 / 일상
행동 / 유형별 선호직업 / 기업이
선호하는 공통행동 등을 통해 나를
아는 나 / 직무와 기업과의 편안한
만나고자 / 개인적 특성 / 일상검사 결과와 일상
+ 해석 워크샵 제작으로
신뢰도 높은 결과 분석 가능!검사(10분) + 워크샵(90분)
총 100분 투자로 나를 100%
아는 나를 찾을 수 있는 일상의 기회!

검사 실시 및 워크숍 일정(서울캠)

1차 11.13(수) 18:00~20:00, 한의대 263호

2차 11.14(목) 13:00~15:00, 산림대 B105호

3차 11.15(금) 18:00~20:00, 청운대 403호

4차 11.26(화) 13:00~15:00, 호관대 101호

5차 11.27(수) 15:00~17:00, 문관대 207호

6차 11.28(목) 13:00~15:00, 청운대 207호

7차 12.04(수) 18:00~20:00, 경영대 151호

검사 실시 및 워크숍 일정(국제캠)

1차 11.13(수) 13:00~15:00

2차 11.26(화) 17:00~19:00

3차 12.05(목) 15:00~17:00

장소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개인 일정에 맞춰 어느 캠퍼스에서,

어느 장소에서도 참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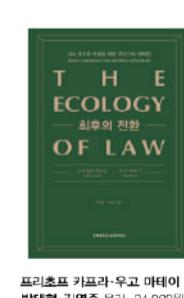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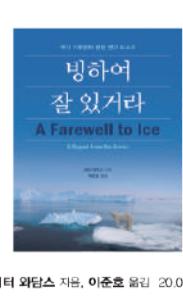
[차수별 선착순 100명]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최후의 전환

모두의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서양 과학의 뿌리를 뒤거든 물리학자 카프라와 이탈리아 커먼즈 운동을 이끈 법학자 마티이의 대화에서 출발한 이 책은 자연, 공동체를 되살리는 법체계에 대한 대안적 통찰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과 기술, 자연세계, 법 제도로서의 커먼즈가 어떻게 정당한 사회를 위한 법으로 진화하는지 열린 관점을 제공한다.

피터초프 카프라·우고 마테이 저
박태현·김영준 옮김 24,000원

피터 와דים 저, 이준호 옮김 20,000원

빙하여, 잘 있거라

기후변화, 북극의 빙하가 사라진다.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1970년부터 50여 년간 극지를 연구해온 피터 와דים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들려준다. 와דים 교수는 북극 해빙과 기상 이변의 패턴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한다.

